

『해동염사』에서 전통과 근대의 조우*

유정월**

<차례>

1. 서론
2. 전통 여성 서사의 종합적 수용 및 배치
3. 외모의 묘사와 정감의 강화
4. 결론: 기록주의와 낭만주의의 결합으로서 여성 역사

<국문초록>

이 글은 차상찬(車相瓚, 1887~1946)의 『해동염사(海東艷史)』에서 전통과 근대가 어떤 방식으로 조우하는가를 기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차상찬이 참조한 것으로 보이는 전대 문헌 및 당대 문헌들을 살펴보고, 전근대적 자료들의 집적과 근대적 글쓰기가 만나 형성하는 새로운 담론의 논리를 탐색한다.

먼저 『해동염사』는 전근대 여성 서사를 종합적으로 수용하면서, 이를 ‘역사’로 자리매김하려 했다. 『해동염사』의 기저가 되는 원고를 쓸 때 차상찬은 당대의 문헌(특히 『조선해어화사』와 『조선여속고』), 전대의 문헌(야담류)뿐 아니라 구술 전승과 답사까지 최대한 활용한다. 그러면서도 『해동염사』는 세부적 문장에 있어서는 근대적 글쓰기의 면모를 보이는데, 여성의 능력과 미추에 대한 강조된 서술, 사랑에 빠진 남성과 여성의 빈번한 등장, 그리움과 반가움 등의 정서에 대한 확장이 그것이다. 그 결과 『해동염사』는 남녀와 부부의 관계를 윤리가 아니라 감정적, 정서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는다.

결국 전통적 기록주의적 태도에 입각하여 여성들의 삶을 망라하고자 한 『해동염사』는 시대, 신분, 능력, 자질, 미추 등에 있어 인물의 다양성을 담보하면서도 이들을 역사적으로 실재한 인물처럼 구성해 낸다. 그러나 사랑과 정서의 낭만적 언어로 수

* 이 논문은 2022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홍익대학교 국어교육과 부교수

식되는 그들의 내면과 행위는 다양하기보다는, 근대인의 연장선 위에 있는 것처럼 재현된다. 『해동염사』는 전통적 기록주의와 근대의 낭만적 수사가 만나 생성된 새로운 여성 역사이다.

주제어 차상찬, 『해동염사』, 『조선여속고』, 『조선해어화사』, 기록주의, 낭만적 수사, 전통, 근대.

1. 서론

이 글은 차상찬(車相贊, 1887~1946)의 『해동염사(海東艷史)』에서 전통과 근대가 어떤 방식으로 조우하는가를 기술하고자 한다. 차상찬은 한문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근대 언론·출판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독특한 인물이다. 그는 성균관 진사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1906년 20세에 보성중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서당에서 소학·사서삼경·통감·사략 등을 배우고 한시를 쓰면서 수학기를 보냈다.¹⁾ 이러한 그의 한문학적 기반은 이후 언론, 출판 활동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본 연구는 『해동염사』와 그가 참조한 것으로 보이는 전대 문헌 및 당대 문헌들에 대해 살펴보고, 전근대적 글과 차상찬의 근대적 글쓰기가 만나 과거 여성의 삶을 어떻게 재현하는가 논하고자 한다.

『해동염사』는 1937년 12월에 초간본이, 1949년 6월에 재간본이 출간되었다. 본 논의의 대상은 차상찬 생전에 출간된 1937년 초간본이다. 그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차상찬은 지금까지 여성의 역사가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했고, “平素史冊을 읽을때에 女子에關한 記錄이있으면 그것을 抄出

1) 박길수, 『차상찬 평전』, 모시는 사람들, 2012.

하야 機會 있는대로 各誌에發表하였다.” 기존의 사서들을 활용하여, 기존에 없던 여성의 역사인 『해동염사』를 쓰게 된 것이다. 차상찬이 기존 이야기를 편집하고 재기술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담론의 논리”²⁾가 생성되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를 근대적 각색 방식을 통해 살피고자 한다.

『해동염사』의 각색 방식을 논하기 위해서는 기존 문헌과의 관계가 먼저 파악되어야 하는데, 『해동염사』에 수록된 글들의 출처는 그 종류가 다양할 뿐 아니라, 원전과의 관계가 매우 복잡하다.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출처를 가지는 것도 있는데, 『해동염사』에서 출처를 밝힌 글은 일부일 뿐이며, 출처를 밝히지 않은 글이 더 많다. 또 원전을 거의 그대로 수채한 글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수록한 글들도 있으며, 원전의 내용을 사건 위주로 요약한 것처럼 보이는 글도 있다. 기존 문헌들끼리의 영향 관계 역시 복잡해서 『해동염사』의 원전을 밝히는 일은 까다로운 작업일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하고, 영향 관계를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그 첫 시도로 이 글에서는 『해동염사』와 전대 야담과, 당대 문헌(특히 이능화의 저작들)과의 관계를 먼저 고구한다.

『해동염사』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강미정의 논문에서 시작하는데, 이 논의에서는 그 구성과 체제를 개괄하고, 『해동염사』에 반영된 여성 인식을 동시대의 다른 독서물들(『여자독본』(장지연, 1908), 『(명완)신여자보감』(김완근, 1922), 『일사유사』(장지연, 1922) 등)과 비교한다. 그 결과 『해동염사』가 일제강점기의 여성 대상 독서물에 담겼던 현모양처에 대한 기대

2) 송효섭, 『초월의 기호학』, 민음사, 2002, 27쪽. 전해 내려오는 여성의 이야기는 뫼토스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을 새롭게 기술하며 만들어지는 논리는 로고스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말하는 ‘새로운 논리’는 일종의 로고스인데, 이 두 가지의 관계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뫼토스는 로고스에 포괄되지만, 로고스가 뫼토스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한다. 뫼토스에 대한 로고스의 해석은 잉여와 잠재성을 가진다. 이 두 용어와 관계에 대해서는 송효섭(2022), 위의 책, 21쪽 참조.

감, 열녀 담론, 후방에서 전쟁을 돕는 총후 부인 등과는 거리를 두었음을 확인한다. 또 『해동염사』가 이상화된 여성으로부터 기피 대상 여성까지 여성 일화들을 수록하면서 여성의 자주성을 강조하였다고 본다.³⁾

강미정의 논문이 『해동염사』와 당대의 유사 독서물의 차이를 염두에 둔, 텍스트 외적인 시각을 견지한 것이라면, 엄태웅은 『해동염사』의 작품 내적 분류를 진행한다. 먼저 ‘염사(艷史)’라는 제목이, 여성에게 조건지어진 억압기제를 감안하고 그와 같은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는 여성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해석한다. 이어서 여성에게 부여되는 역할에 따라 각편을 분류하는데, 남성이나 사회가 요구하는 바를 충실히 수행하는 경우, 남성이나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것 이상의 능력을 보여주는 경우, 사회적 소수자인 여성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로 나누어 보면서, 궁극적으로 차상찬이 다양한 편견을 넘어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려 했음을 추론한다.⁴⁾

이상의 논의가 『해동염사』 전편을 대상으로 경향성을 탐구하고자 한 것이라면 임보연은 『해동염사』 2편인 「명부인·명첩」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여성들의 지식과 교양을 위해 차상찬이 이 책을 편찬했다는 결론을 내린다. 차상찬이 여전히 남성 중심의 시각에서 여성을 바라보기도 했지만, 여성 운동 및 교육에도 관심을 갖고 여성들의 역할과 활동 범주가 더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본다. 대중들을 위해, 그중에서도 여성들의 지식과 교양을 위해, 책을 편찬하면서 여성의 지식과 교양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는 것이다.⁵⁾ 이상의 편찬의도가 2편 외, 텍스트 전체의 특성을

3) 강미정, 『『해동염사(海東艷史)』의 내용과 특성』, 『한국어문교육』 34,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21, 347~364쪽.

4) 엄태웅, 「차상찬의 『해동염사』 고찰」, *Journal of Korean Culture* 59, 고려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술확산연구소, 2022, 329~358쪽.

5) 임보연, 「근대 여성의 지식과 교양으로서의 『해동염사(海東艷史)』-제2편 명부인·명첩(名夫人·名妾) 이야기를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75, 동아시아고대학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이 논의는 『해동열사』에 다수 수록된 한시와 시조의 기능과 역할에 주목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간 『해동열사』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펼친 논문은 수적으로 많지 않지만 각각 독자적 지점을 개척했다. 당대 다른 독서물과 비교하면서, 텍스트 내적인 분류와 분석을 통해, 그리고 한 편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면서 『해동열사』의 특징과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였으며 각각의 시각과 방법을 감안했을 때 타당한 결론들을 얻었다고 본다. 이 글은 기존 논의들에서 분석되었듯, 『해동열사』가 여성의 주체성, 적극성, 그들의 도전과 능력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저작임에 동의하면서, 『해동열사』가 이전 문헌과 가지는 관계를 논하고자 한다. 『해동열사』의 근간이 되는 원고들이 기존 문헌들에서 초출된 것이라면, 기존 문헌들이 『해동열사』에 미친 영향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역설적으로 보일 수 있겠으나 본 논의에서 전통의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해동열사』 각색의 새로움에 접근하고자 한다.

2. 전통 여성 서사의 종합적 수용 및 배치

1) 여성에 대한 기록의 집록과 역사에의 지향

『해동열사』는 전통적으로 역사서와 잡록집을 편찬할 때 자주 나타나는 ‘집록’의 방식을 사용한다. 서문에 “平素史冊을 읽을때에 女子에關한 記錄이있으면 그것을 抄出하여 機會있는대로 各誌에發表하였고 그發表하였던 것을 여러해동만 모와서 이제 한冊을 또編成하였으니 이른바 이海東艷史이다”라고 한 것을 참조하면, 두 가지 차원의 집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 문헌→잡지 원고, 이어서 잡지 원고→저서 『해동열사』의 각 단계마다 ‘집록’의 방식이 적용된다. 차상찬은 기존 문헌에서 여성의 역사로 불

수 있는 글을 가져와 잡지에 투고할 대부분의 원고를 썼다. 『해동염사』에는 차상찬이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힌 각편이 다수 있다.⁶⁾ 하나의 출처를 가지는 이야기도 있지만 출처가 두 개 이상인 이야기도 있다. 뒤에 살펴겠지만 출처로 밝히지 않았으나 주요한 참고문헌이 되는 저작들은 따로 존재하며, 출처를 밝히지 않은 글도 대부분 문헌을 참조하면서 원고를 썼다. 그는 그 원고를 잡지에 투고했고, 이 책은 기존 글들은 모은 것이다. 잡지에 발표한 자료를 수합했다는 점에서도 이 책은 집록의 방식을 따른다.

『해동염사』는 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 조선시대를 살았던 실존 인물들(가령 선덕여왕, 관나, 신사임당, 혜경궁, 허난설헌, 소설현 등)뿐 아니라 녹족부인, 춘향, 운영, 소복 미인 등 허구적 여성 인물에 대한 기록들을 망라한다. 참조한 자료들을 보면 『삼국사기』, 『동국통감』, 『고려사』와 같은 사서가 있는가 하면 『어우야담』, 『계서야담』, 『금계필담』 등의 야담류도

6)	속제목	출처
第一編 后妃·女王·公主· 宮人	海慕漱와柳花의 奇緣	『동국이상국집』 「동명왕편서」
	朱蒙王과禮氏	『삼국사기』
	文明王后 金文姬	『삼국유사』
	靑洛國首露王妃許氏	『금관지』 및 『신증동국여지승람』
	西海龍女 高麗元昌王后	『고려사』 「고려세계」와 『편년통록』
	善化公主	『삼국유사』
	新羅第二世女王眞德女王勝曼	『삼국사기』
	安平大君十宮姬	<운영전>
第二編 名夫人·名妾	百歲夫人許政承姉氏	『동계만록』
	許蘭雪軒과小雪軒	『허난설헌본집』, 『지봉유설』 「시화」
	宋象賢의愛妾韓金蟾	『국조명신록』
	雲江趙瑗妾 女流詩人李玉峰	『지봉유설』 「시화(詩話)」, 『문소만록』
第三編 烈女·孝女	鎭篋引의哀話 古朝鮮狂夫의妻	『고금주』
	嘉實妻薛氏	『동국통감』
	江南德의 母親	『어우야담』
第四編 妬婦·醜婦	盲女の 딸孝女知恩	『삼국사기』, 『삼국유사』
	愛馬曷斬殺한 崔牧使夫人	『청과극담』
	金兵使의 딸蒼嚴	『창계문건』
	壬亂義兵將, 金汚夫人	『금계필담』
第五編 名妓	江陵妓紅粧과 風流巡察	『동인시화』, 『청구야담』, 『해동잡록』
	長城名妓蘆花와 盧御使	『동야휘집』, 『동야수록』
	黃海老監司와 谷山名妓梅花	『계서야담』
	嘉山義妓蓮紅	『침우담조』

있고, <운영전>과 같은 소설, <한중록>과 같은 수필도 있다. 『해동염사』는 여성의 서사뿐 아니라 여성이 쓴 다수의 한시와 시조⁷⁾, 여성들에 대한 민요와 비명까지, 여성에 대한 다양한 기록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해동염사』는 종합화 혹은 체계화의 의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기술된 단행본은 아니다. 실제로 『해동염사』의 각편들은 차상찬이 주로 『개벽』과 『별건곤』에 투고한 논문들을 거의 그대로 재수록한다. 『별건곤』에서 이 각편들을 포함하는 코너명이나 제목을 보면, ‘기사신년사화’(<장희빈 애사> 4-1, 1929), ‘통쾌무쌍기인편’(<개성 명기 황진이>, 4-5, 1929), ‘역대위인의 결혼기담’(5-4, 1930), ‘4천년 사외사’(역대왕비·공주편 8-7, 1933, 속편은 9-1, 1934, 삼대여결9-3, 1934), ‘민요에 나타난 애화’(<쌍금노래와 흥도남매> 7-10, 1932, <산유화노래와 박향량> 7-10, 1932, <메나라와 장다리> 7-12, 1932, <송량요와 최경> 8-2, 1933), ‘조선역대명기전’(<배정승을조살한 국기설매> 6-8, 1931), ‘평판기’(<오대도시미인평판기> 4-2, 1929), ‘전설’(<춘향이는정말미인이었느냐> 7-1, 1932) 등이다. 이는 정통 역사라기보다는 사외사, 사화, 기담, 애화, 전, 평판기, 전설 등, 서로 다른 양식에 속한다.⁸⁾

다양한 의도와 목적으로 쓰인 원고들이 단행본으로 묶이면서 『해동염사

7) 제2편 「명부인·명첩」에는 11개의 이야기에, 제3편 「열녀·효녀」와 제4편 「투부·추부」에는 2개의 이야기에, 제5편 「명기」에는 4개의 이야기에 한시가 등장한다. 특히 이 책은 조선의 3대 여류시인이라고 하는 황진이의 시조 3편, 허난설헌의 한시 3편, 이옥봉의 한시 10편을 수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박죽서, 금원, 김운초 등의 한시들을 다수 소개한다.

8) 이승윤은 『별건곤』에 실린 다양한 글들을 “애화(哀話)와 실화(實話), 사화(史話)와 야담(野談), 수기(手記)와 우화(寓話), 기담(奇談)과 괴담(怪談), 만담(漫談)과 한담(閑談)등 다양한 양식적 명칭”하에 있다고 보고, 그것이 뚜렷한 원칙에 의해 분류된 것은 아니며, “각 양식 간의 분류가 불가능할 만큼 차용과 삼투, 그로 인한 다양한 변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승윤, 「한국 근대 역사소설의 형성과 전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86, 89쪽.

』는 이질적인 성격의 텍스트를 ‘역사’로 정리하고자 하였다. 역사서에 대한 명시적인 지향점은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데, 한치윤(韓致濬:1765-1814)의 『해동역사』를 상기시키는 ‘해동역사’라는 제목이 그러하고, 서문에서 여자의 역사가 쓰이지 않았음을 유감으로 여겨 책을 쓰게 되었다는 동기⁹⁾도 그러하다. 실제로 원래 있던 원고들이 전통 역사와 거리가 있는 내용들이기에 이 ‘역사’라는 장르는 견인력을 가지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텍스트는 편집을 통해 역사로서의 효과를 발휘하고자 하는데, 각 원고를 통시적 흐름에 따라 배치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¹⁰⁾

『해동역사』 1편 「후비·왕비·공주·궁인」에 나오는 후비들의 순서를 보면, 제일 먼저 유희가, 마지막으로 사도세자의 부인 혜경궁 홍씨가 소개된다. 그 안에서 신라, 고구려 등으로 왕조를 세분하여 다시 왕후들을 소개하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체로 역사적 순서에 따라 여성인물의 서사를 배치한다.¹¹⁾ 2편 「명부인·명첩」도 세조 때 신숙주의 부인부터 시작해서 성종 때 허종과 허침의 누이 백세부인에 이어 신사임당(1504~1551), 허난설헌(1563~1589), 허난설헌을 흠모했던 소설현 등의 이야기가 차례로 배치되고, 마지막에 인조반정과 관련하여 세 명의 여성들이 소개되어 통시적 흐름을 갖는다. 4편 「투부·추부」에서 ‘투부’는 세종 때 최운해의 부인, 단종 때 김효성의 부인, 숙종 때 조태역의 부인 순으로 순차적으로

9) “이렇다할만한 女子本位の 史冊은 完成된 것이 없으니 엇지 遺憾이라 안이할수 있으리요.” 『해동역사』, 「서문」

10) 이것이 차상찬의 목적과 의도를 실현한 것인지 알 수는 없다. 2024년도 차상찬 학술대회에서 이 발표문의 토론자였던 유춘동은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여러 중책을 맡은 언론인이자 역사학자 장도빈이 편집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해동역사』의 출판 과정에 미친 장도빈의 영향에 대한 가정은 흥미로운 부분이며 추후 입증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논문에서는 편집과 출판 과정의 개입된 의도와 목적이 아니라 『해동역사』의 텍스트적 특징에 주목하고자 한다.

11) 다만 고구려 후비들은 화희와 치희(2대)에 이어 관나(12대), 우씨(9대), 경희소후(10대) 순서로 소개된다.

나온다. 6편의 끝에 <五大都市의 美人(漫談)>, <各道女子의 살임자랑>, <八道處女の 各樣各色(戲談)>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차상찬이 당대의 삶 역시 역사 출현의 과정으로 생각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결국 시작과 끝만 참고하자면, 이 책은 유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당대(1930년대) 여성의 삶까지 2천 년간 여성의 역사를 다루는 셈이다. 백제 여성에 대한 기록이 적기는 하지만 그것은 기존 문헌 자료가 미비했기 때문으로 보이며, 『해동염사』는 고구려부터 근대까지 다양한 시대, 다양한 왕조의 여성 삶을 망라하고자 한다.

『해동염사』는 다양한 시대를 살았던 여성 인물들, 다양한 신분과 다양한 업적을 가졌을 여성들을 시대순으로 배치할 뿐 아니라 지위와 역할에 따라 유사한 여성들의 서사를 모으는 방식으로 체제를 구성하였다. 그 결과 제1편에 후비, 여왕, 공주, 궁인, 제2편에 명부인, 명첩, 제3편에 열녀, 효녀, 4편에 투부, 추부, 제5편에 명기, 제6편에 여성에 관한 전설, 민담, 괴담, 만담, 희담이 배치된다. 『해동염사』는 크게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기준으로 6개의 편목을 나누고, 각각의 항목 내에 다시 세부적 항목(소항목)을 두기도 했다. 이 세부적 항목은 명시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특히 6편은 매우 잡다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듯 보이지만, 소항목이 다양한 것일 뿐 이 항목들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는 없어 6편의 편명 각각이 모두 세부 목차로 기능한다.¹²⁾

6편에는 <五大都市의 美人>, <各道女子의 살임자랑>, <八道處女の 各樣各色>처럼 서사가 아닌 서술이 포함되어 있어 그 기술 방식이 앞의

12) 소항목이 명시되지 않지만, 실제 구성에는 반영되는 경우도 있다. 1편은 후비, 여왕, 공주, 궁인의 순서에 따라 배치되지만 이는 편명에서만 제시될 뿐 세부 목차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5편 「투부·추부」에서 ‘투부’는 세부항목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추부’는 세부 목차로 제시되어 있어 그 앞에 제시된 여성들이 ‘투부’임을 알 수 있게 한다. 편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해동염사』가 유사한 인물들 내에서도 다시 더 유사한 인물들 모아 편집했음을 알 수 있다.

내용들과 상이한 것처럼 느껴진다.¹³⁾ 그러나 이 책이 여성의 이야기를 유형별로 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역시 이질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五大都市의 美人>, <各道女子의 살임자랑>은 ‘만담’에, <八道處女の 各樣各色>은 ‘희담’에 속하는 것들이다.

2) 기존 문헌의 수용과 변형

(1) 당대 문헌과의 관계

『해동염사』는 다양한 시기 다양한 유형의 여성들을 집록하기 위해 다양한 문헌들을 참고한다. 이 책 3편에는 이름난 기생들의 이야기가 다수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이능화(李能和)의 『조선해어화사』와 긴밀한 관련을 가진다. 『조선해어화사』는 한남서림과 동양서원에서 1927년 공동으로 발행한 책으로, 고대부터 당대까지 기생들에 대한 자료를 정리한 역사서이다.¹⁴⁾ 『조선해어화사』는 역대 기생들에 대한 기록을 종합한 것이기에 『해동염사』에 수재된 기생 이야기를 『조선해어화사』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일견 당연하다. 두 저서가 모두 과거 문헌들을 참조하였기에 발생한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해동염사』가 『조선해어화사』에서 직접적으로 영향받은 것으로 보이는 각편들이 다수 있다. 해당 편목의 제목을 보면 『조선해어화사』처럼 ‘강릉 기녀 흥장’, ‘영흥 명기 소춘풍’처럼 고을과 기명을 함께 쓴다. 이는

13) 『해동염사』는 1937년, 1949년(차상찬 사후) 두 번 출판되고, 1949년에는 <五大都市의 美人>, <各道女子의 살임자랑>, <八道處女の 各樣各色> 등 3편을 제외한다. 서사가 아니라 서술이며, 역사라기보다는 당대의 현상들로 생각되어 제외된 것은 아닌가 한다.

14) 『조선해어화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 DB. 고대에서부터 당시까지의 한국 기생사에 대한 저술로, 전체 3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문으로 쓰였다. 산견된 기생 자료를 묶어 편찬한 자료집으로서 의의를 가지나, 기생에 대한 시각을 왜곡시켰다는 비판도 있다. 『해동염사』와 비교할 때에는 그 제목, 고유명사, 스토리가 기준이 되기에 번역본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조선 사회에서 관습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平壤 醜妓와 朴燁>인데, 『조선해어화사』 제목에 “평양 추기”가 포함되는 등 유사한 제목들이 있는 것을 보면 『해동염사』의 원고들이 『조선해어화사』의 영향권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동염사』의 <開城名妓 黃眞伊>에서 황진이의 이야기를 선택하고 배치한 순서도 『조선해어화사』와 동일하다. 『조선해어화사』29장 재모와 이체가 있는 명기 중 <송도 기생 황진이>는, 『송도기이』, 『어우야담』, 『성웅지소록』에 있던 황진이 기록을 집약한 것이다. 명기 황진이의 이야기는 문헌으로 전해지는 에피소드의 종류가 매우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동염사』의 황진이 이야기는 그 가운데에서도 『조선해어화사』와 동일한 사건을, 같은 순서로 배치한다. 『조선해어화사』에서는 장을 달리해서(30장, 시가와 서화에 능한 명기 중 <송도 기생 황진이>) 황진이의 시가 3편을 소개한다. <開城名妓 黃眞伊> 뒷부분에 부기된 황진이가 쓴 시의 종류, 순서 역시 『조선해어화사』와 동일하다. 『조선해어화사』는 황진이의 시가를 소개하면서 길재의 시조를 황진이의 것으로 전하는데, 『해동염사』 역시 같은 오류를 범한다.

각편마다 세부적인 영향 관계는 더 논구해야겠지만, 이 두 저서에 공통으로 나타난 기생 인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성 인물	『조선해어화사』		『해동염사』	
	제목	장명(章名)	제목	편명(篇名)
평양의 못생긴 기녀	평양의 못생긴 기생의 시	30장 시가와 서화에 능한 명기	평양 추기와 박엽	4편 투부, 추부
호호	손억이 승천 기생을 사랑하다	6장 고려사람의 향염시	강남 연자루와 명기 호호	5편 명기
설매	설매	29장 재모와 이체가 있는 명기	배정승과 국기 설매	5편 명기
홍장	강릉 기생 홍장	29장 재모와 이체가 있는 명기	강릉기 홍장과 풍류순찰	5편 명기

소춘풍	영흥 기생 소춘풍	29장 재모와 이체가 있는 명기	영흥 명기 소춘풍의 기저	5편 명기
황진이	송도 기생 황진이	29장 재모와 이체가 있는 명기	개성 명기 황진이	5편 명기
공주 관아의 어린 기생	고재봉이 공주 기생을 얻다	18장 명기생과 명유생	고재봉과 공주 동기	5편 명기
매화	늙은 황해감사의 기첩이 부사와 밀통하다	15장 기첩을 두면 반드시 뒷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	황해 노감사와 곡산 명기 매화	5편 명기
연흥	가산 기생 연흥	32장 절기, 의기, 효기, 지기	가산 의기 연흥	5편 명기
계월향	평양 기생 계월향	32장 절기, 의기, 효기, 지기	계월향, 옥개, 채란	5편 명기

<長城名妓蘆花와 盧御使>를 보면, 『조선해어화사』에서는 노화의 이야기가 평양 기생으로 소개되면서, 어사가 죽이려 했으나 술 파는 여자로 꾸며 어사를 유혹하였다는 요약적 내용만 나온다. 『해동염사』는 『조선해어화사』가 아니라, 『동야휘집(東野彙輯)』과 『동야수록(東雅隨錄)』을 출처로 제시한다.¹⁵⁾ 그러나 <長城名妓蘆花와 盧御使> 부기에, “다른기록에는 이사실을 숙종때(肅宗時)일이라하고 또 노화는 장성기생이 아니요 평양기생이라”¹⁶⁾하였다고 쓰는데, 여기서 다른 기록이란 『조선해어화사』를 지칭함을 알 수 있다. 차상찬은 『조선여속고』나 『조선해어화사』를 참조하면서 일차적으로 여성 인물을 선별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거기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원전을 직접 확인하고 재화하는 방식으로 원고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해어화사』에서 참고한 이야기들이 『해동염사』 5편에 주로 배치되

15) 『동야휘집』에서는 기생 이름이 ‘노화’가 아니라 ‘노아(盧兒)’로 나오며 수록된 시의 작구가 『해동염사』와 다르다. 『동야수록』이 어떤 책인지 알려진 바가 없다.

16) 차상찬, 『해동염사』, 한성도서주식회사, 1937, 215쪽.

어 있다면, 『조선여속고』¹⁷⁾에서 참고한 자료들은 더 폭넓게 나타난다. 두 책 모두에 열녀라는 항목이 있으며,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백수광부의 부인 여옥이다. 여옥을 음악이나 노래가 아니라 열녀의 관점에서 조명하고자 한 점, 마찬가지로 아랑의 이야기를 귀신이나 기담이 아니라 열녀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 모두 동일하다. 『조선여속고』의 1장 ‘조선유래의 신화적 혼구(婚媾) 등설’은 특별한 혼인을 했던 인물의 이야기를 14개의 세부 내용으로 나누어 수록하는데 이 중 상당수가 『해동염사』에서 선택된다. 『조선여속고』는 『삼국사기』와 달리 도미부인 이야기에 이어 지리산녀 이야기를 서술하는데, 『해동염사』 역시 『조선여속고』처럼 두 이야기를 연달아 소개한다. 『해동염사』의 <眞智王을 魔殺한 新羅의 美人 桃花娘>에서 도화녀에 초점을 두면서 비형량 이야기를 대폭 삭제한 것도 『조선여속고』의 영향으로 보인다.

특히 『해동염사』는 여성의 분류에서 ‘투부’라는 항목을 따로 선정한 것이 특징적인데, 『조선여속고』의 15장 <조선여계 투부기담>의 영향이 아닐까 한다. 『조선여속고』의 이 장에는 총 6편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3편이 『해동염사』에 수록된 것과 동일하다. 『조선여속고』의 김판원 부인과 최운해 부인 이야기는 모두 『청과극담』에서 가져온 것인데, 이 책은 두 이야기를 연달아 쓰고, 최운해 부인 이야기에 대해서만 출전으로 밝히고 있다. 『해동염사』에도 『청과극담』이라는 출전이, 같은 방식으로 제시된다.

앞서 황진이 이야기처럼, 신사임당에 대해서도 여러 일화가 있는데, 『해동염사』의 <李栗谷의 어머니 師任堂申氏>는 남편에게 자신의 사후에 침

17) 『조선여속고』 역시 한남서림과 동양서원에서 1927년 6월에 발행하였다. 전체 26장으로 나누어 혼인, 산욕숙, 여성의 명칭과 지위·복식, 여성 관련 세시풍속, 여성의 노동, 여성의 문학, 효녀와 효부 및 열녀, 여성 교육에 대해 살피고 있다. 『조선여속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 DB.

을 들이지 말 것을 당부하는 일화를 선별하였다. 이는 차상찬이 현모양처 보다는 남성을 바로 잡는 자주적 여성으로 신사임당을 제시하고자 한 의도에서라기보다는¹⁸⁾ 일차적으로 『조선여속고』의 해당 일화를 참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성 인물	『조선여속고』		『해동명사』	
	제목	장명(章名)	제목	편명(篇名)
유화	천체의 아들 해모수가 하백의 딸을 취한 설	1장 조선유래의 신화적 혼구(婚媾) 등설	해모수와 유화의 기연	1편 후비, 여왕, 공주, 궁인
양을나, 부을나, 고을나의 세 부인들	탐라국 세 신인이 세 일본 왕후를 취한 설	1장 조선유래의 신화적 혼구(婚媾) 등설	목함 중 청의삼처녀	6편 여성에 관한 전설, 민요, 괴담, 민담, 회담
알영	박혁거세가 알영후를 취한 설	1장 조선유래의 신화적 혼구(婚媾) 등설	박혁거세 왕비 알영	1편 후비, 여왕, 공주, 궁인
허황옥	수로왕이 인도공주를 취한 설	1장 조선유래의 신화적 혼구(婚媾) 등설	가락국 수로왕비 허씨	1편 후비, 여왕, 공주, 궁인
선화공주	백제 무왕 지가 신라공주를 취한 일	1장 조선유래의 신화적 혼구(婚媾) 등설	선화공주	1편 후비, 여왕, 공주, 궁인
김문희	김문희가 꿈을 사서 김춘추에게 시집간 일	1장 조선유래의 신화적 혼구(婚媾) 등설	신라 문명왕후 김문희	1편 후비, 여왕, 공주, 궁인
작계건과 혼인한 용녀	작계건이 서해용녀를 취한 일	1장 조선유래의 신화적 혼구(婚媾) 등설	서해용녀 고려 원창왕후 ¹⁹⁾	1편 후비, 여왕, 공주, 궁인
고구려 왕후 우씨	고구려	2장 역대 여속 및 통혼족류	고국천왕의 왕후 우씨	1편 후비, 여왕, 공주, 궁인
제후	신라-제후가 백운을 좇아 초약을 따르다	2장 역대 여속 및 통혼족류	정녀 제후와 백운랑	3편 열녀, 정부, 효녀

18)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강미정(2021), 앞의 논문, 356쪽.

설씨	신라-설씨녀	2장 역대 여숙 및 통혼족류	가실쳐 설씨	3편 열녀, 정부, 효녀
조태억 부인	조태억 부인	15장 조선여계 투부기담	평양까지 쫓아간 조태억 부인	4편 투부, 추부
김판원 부인	김판원 부인	15장 조선여계 투부기담	여승이 되려거든- 김효성의 처	4편 투부, 추부
최운해 부인	최운해 부인	15장 조선여계 투부기담	에마를 참살한 최목사 부인	4편 투부, 추부
백수광부의 처	조선 고대의 열녀 -광부의 아내	25장 조선의 열녀	공후인의 애화 고조선 광부의 처	3편 열녀, 정부, 효녀
평강공주	고구려 열녀-평강왕녀 고씨	25장 조선의 열녀	평원공주와 바보온달	3편 열녀, 정부, 효녀
도미	백제 열녀 -도미의 아내	25장 조선의 열녀	백제 열녀 도미의 처	3편 열녀, 정부, 효녀
지리산녀	백제 열녀 -지리산녀	25장 조선의 열녀	지리산녀	3편 열녀, 정부, 효녀
도화랑	신라 열녀-도화랑	25장 조선의 열녀	진지왕을 마살한 신라의 미인 도화랑	3편 열녀, 정부, 효녀
지은	신라 효녀	24장 조선의 효녀와 효부	맹녀의 딸 효녀 지은	3편 열녀, 정부, 효녀
신사임당	사임당 신씨	조선부녀의 지식계급	이율곡의 어머니 사임당 신씨	2편 명부인, 명첩

이 두 저작 사이에는 공통점뿐 아니라 차이도 있다. 『조선여숙고』는 그 제목이 시사하듯 여성에 관한 습속, 관습, 제도, 풍습 등을 집대성한 책이다. 인물 중심으로 서술된 부분도 있지만 장의 구성이나 내용의 기술이 여성 풍속에 맞추어져 있다. 일례로 산상왕 연우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조선여숙고』는 고구려가 부여로부터 습속을 이어 받아 형수를 아내로 삼았다는 데 초점을 둔다.²⁰⁾ 그러나 『해동명사』는 남편인 고국천왕이 죽자 그 아아를 찾아간 우씨의 영리함과 민첩함을 강조한다. 『조선여숙고』에서

19) 『조선여숙고』에서는 작제건의 윗대와 작제건 본인의 서사를 두 개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으나, 『해동명사』에서는 두 이야기를 합쳐 하나의 제목 아래 서술하였다.

20) 이능화, 『조선여숙고』, 김상익 역, 동문선, 1990, 75쪽.

<백제 무왕 지가 신라공주를 취한 일>이, 『해동염사』에서는 <선화공주>으로 바뀌는데, 이렇게 『조선여속고』에서는 제목에 여성의 이름을 노출하지 않았지만 『해동염사』에서는 여성의 이름을 기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 『조선여속고』는 남성 주인공의 행위에 초점을 두어 남성이 여성을 취한 일이라고 세부 제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지만, 『해동염사』는 오히려 여성 인물의 행위를 중심으로 제목을 설정하기도 한다.

(2) 전대 문헌과의 관계

앞서 언급한 『조선해어화사』와 『조선여속고』에는 출전이 명기되어 있어서 차상찬은 이 책들을 참고하면서 원전에 접근했던 것으로 보인다. 1편의 <안평대군(安平大君)의 십궁희(十宮姬)>는 <운영전>을 출전으로 밝히고 있는데, 『조선여속고』의 23장 조선부녀의 지식계급 중 <안평궁희 십인>과 제목도 유사하고, 소옥부터 보련의 시까지 열 편의 시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 점도 공통적이다. 차이도 있는데, 『조선여속고』는 시를 열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반면 『해동염사』는 안평대군에 대한 간단한 소개로 시작하고, 마지막에 안평대군의 시평을 첨부하고 있다. 차상찬이 『조선여속고』를 참고하면서 <운영전> 원전을 읽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른 한편 『조선해어화사』나 『조선여속고』에 나오지 않는 여성들의 서사가 『해동염사』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유인숙의 계집종이 주인의 원수를 갚기 위해 정순봉을 죽인 이야기, <柳文正家の 忠婢>는 『어우야담』을 직접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이야기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지봉유설』에 수록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우야담』에 수록된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세부적으로 차이가 많지만 핵심적인 몇 가지를 언급하자면, 『지봉유설』에서는 ‘갹’이라는 유관의 종이 주인공으로 나온다. 그녀는 정순봉의 종이 된 후 남자 종을 시켜 죽은 사람의 팔을 구하게 하여 이를 정순봉의 베개에 넣는다. 『어우야담』에서는 유관이 아니라 유인숙의 종이

정순봉의 종이 되는 것으로 나오며, 정순봉이 꿈에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죽고 나중에 그 부인이 무당을 통해 베개 속에서 사람의 유골을 찾게 된다고 한다.²¹⁾ 『오백년기담』, 『본조여사』 등 당대의 문헌들은 『지봉유설』과 유사하며 『어우야담』과 동일한 내용을 다른 야담에서는 찾기 힘들데, 『해동염사』는 이 『어우야담』과 거의 동일하다.

뒤에 논할 <江南德의 母親> 역시 『어우야담』에 수록된 이야기를 각색한 것인데, 장사를 하러 갔다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며 과부로 지낸 여성이, 남편이 중국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먼 길을 찾아가 남편과 재회한다는 이야기로, 『조선여속고』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상을 보면, 『어우야담』 역시 『해동염사』의 기저가 되는 원고들을 작성할 때 중요한 레퍼런스가 아니었을까 한다.

『해동염사』에는 『금계필담』에서 가져온 이야기도 있다. <壬亂義兵將, 金汚夫人>이 그러한데, 비슷한 이야기는 『청구야담』, 『기문총화』, 『계서야담』 등에 모두 수록되어 있으나 이들 이야기에서 여성 인물은 낮잠만 자고 게으른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금계필담』은 서유영이, 기록이 아니라 기억에 의존하여 쓴 저서로²²⁾, 기존의 문헌들과 세부가 다른 내용들이 다수 있다. 『금계필담』에서는 김면의 부인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못생긴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해동염사』는 이를 따르고 있다.

봉래 양사언의 모친 이야기는 『동패락송』, 『계서야담』, 『금계필담』 등에 수록되어 있다. 그 부친이 나중에 양사언의 어머니가 되는 처녀를 만난 것이, 영광군수로 부임하던 중인가 아니면 유람을 하던 중인가 차이가 있는데, 『해동염사』의 <楊蓬萊 母親>은 전자를 따르고 있어 『계서야담』과 다

21) 두 유형의 차이에 대해서는 김현룡, 『한국문헌설화』 3,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9, 479~481쪽 참고.

22) 서유영은 젊은 날의 기억들을 잊었고, 가지고 있는 책도 없는 상태에서 생각이 떠오르는데로 기록했음을 밝힌다. 서유영, 『금계필담』, 서(序)(송정민 외 역, 『금계필담』, 명문당, 1985.).

르다. 또 『금계필담』은 처녀의 아버지를 점포의 주인으로 설정하고 있어 고을 장교로 설정된 『해동염사』와 차이가 있다. 이상을 고려하면 군수로서 도입하던 길에 고을 장교의 딸을 만나는 것으로 설정된 『동패락송』이 『해동염사』와 가장 유사해서 <楊蓬萊 母親>은 『동패락송』을 참고하였을 가능성이 크다.²³⁾

그런가 하면 출처를 정확히 알기 힘든 이야기들도 다수 있다. 예컨대 차상찬이 『계서야담』을 참조했다고 하는 <곡산 명기 매화>는 『조선여속고』의 내용도 동일해서 어떤 기록을 참고했는지 판명하기 힘들다. 효녀 지은 이야기 역시 『삼국유사』, 『삼국사기』, 『조선여속고』에 모두 나오지만 『해동염사』 <盲女의 딸 孝女知恩>은 많이 축약되어 있어서 저본을 알 수 없다. 계월향 이야기 역시 『조선여속고』를 참고하면서 정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에는 조금 더 복잡한 정황이 개입되어 있어 다음 절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3) 답사 및 구전된 이야기들

『해동염사』에는 <千古哀怨 春妓桂心>이나 <春香은 美人이 아니다> 처럼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도 있다.

아직껏 이세상에서는 누구나 물론하고 춘향이는 그소설에씨워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천하의 미인이요 만고의 렬녀로만 안다. 그러나 남원부근에는 그와는 정반대되는 한 이상한 전설이 지금껏 떠돌고있다...이것이 과연 사실일지 모르나 남원근방에는 늙은이들새이에 이러한 수수께끼같은 이야기가 지금껏 남아 있다.²⁴⁾

23) 노명흠, 『동패락송』, 23화(김동욱 역, 『국역 동패락송』, 보고서, 2012, 144~148쪽).

24) <春香은 美人이 아니다>, 『해동염사』, 264쪽, 270쪽.

이 사실은 春川에서 傳해 오는 이야기인데 下記한 古碑銘과는 多少差異가 있음으로 後日의 參考를 爲하여 古碑銘全文을 記錄한다.²⁵⁾

춘향이 원래는 박색이었다는 이야기는 남원 인근의 전설이라고 하고, 계심의 이야기는 춘천에 전해 오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 이야기들이 오로지 기억이나 구술 전승에만 의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千古哀怨 春妓桂心> 말미에는 박종정(朴宗正)이 짓고 유상륜(柳尙論)이 글씨를 쓴 비명(碑銘), <春妓桂心 殉節墳碑銘>의 전문이 기재되어 있다. 남편과 헤어지게 된 계기, 태아의 유산 여부, 남편이 죽은 계심의 꿈에 나타난 사건 등이 『해동염사』와는 다르나, 이름과 성, 혼인한 나이, 남편의 신분 등이 비명에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차상찬은 비명을 참고하면서 자신의 고향 춘천에 전해 내려온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닐까 한다.

『해동염사』에는 차상찬이 실제로 지역을 답사한 후 쓴 원고들도 일부 수록되어 있다. 차상찬은 <朝鮮文化의 基本調査>를 위해 1923년 경상남도를 답사하고 <南江의 落花와 金碧의 冤血>를 『개벽』 34호에 수록하고, 이어서 이 원고를 1929년 『별건곤』 22호 ‘南隊’ 중 <嶺南樓前 千古悲劇 尹阿娘의 冤死>로 재수록하였는데, 이것이 『해동염사』 3편 <천고의 열녀 윤아랑>이다. 『개벽』의 원고 끝부분을 참고하면²⁶⁾ 『오백년기담』, 유명 극단의 각본, 그리고 구전 전설을 동시에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차상찬이 경상남도를 답사하던 시기에 경상북도도 함께 답사하였다. 그 결과물 <魚腹의 香魂>을 『개벽』 36호(33-35)에 수록하였고, 이후 이 원고를 보완해서 <山有花 노래와 朴香娘>이라는 제목으로 『별건곤』(71호)에

25) <千古哀怨 春妓桂心>, 『해동염사』, 236쪽.

26) “(500년 奇談과 年前 某劇團에서 흥행하던 각본을 보자면 此에 기록한 바와 상반하는 者가 多하나 予는 眞實을 尊重히 하여 眞實대로 記載하고 且 後日에 尙世한 조사를 爲하야 更히 발표코자 한다.)” 『개벽』, 34호, 35쪽.

수록한 바 있다. 이 원고는 <山有花歌와 朴香娘>이라는 제목으로 『해동염사』 6편에 재수록된다. 1924년에는 평남도를 답사하고 <녹죽부인, 계월향, 옥개>를 『개벽』 51호에 투고하였고 이를 <녹죽부인과 십이삼천평>, <계월향, 옥개, 채란>으로 분할해서 『해동염사』 6편과 3편에 각각 수록하였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현지에서 들은 것이라기보다는 문헌을 보고 참조한 듯하다. 녹죽부인 이야기는 『여지도서』의 녹죽부인 이야기와 흡사한 부분이 많다.²⁷⁾

<계월향, 옥개, 채란>은 앞서 언급한 『조선해어화사』를 참조한 듯한데, 『조선해어화사』는 32장 중 <평양기생 계월향>이라는 제목에 출처가 다른 두 가지 각편을 수록한다. 하나는 김응서 중심으로 정리된 『이계집(耳溪集)』의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적으로 계월향의 행위에 초점을 둔 『평양지(平壤志)』의 이야기이다. 『이계집』에는 김응서의 신이한 행적(겨드랑이에 뼈가 있어 마치 새의 깃털과 같음)이, 『평양지』에는 계월향과 김응서의 만남, 김응서가 일본 장수를 처단한 일과 계월향의 최후가 잘 나타나는데, 애초 『개벽』의 원고는 두 가지를 혼용한 개작으로 보인다. 다만, 계월향, 옥개, 채란 세 여성의 이야기를 묶어서 서술한 것은 답사 중 이들의 영정이 같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²⁸⁾ 아마도 차상찬은 답사 전후 문헌을 참조하여 『개벽』의 원고를 작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27) 강상대, 「'녹죽부인' 스토리텔링을 위한 원형서사 연구」, 『한국문예창작』 9(3), 한국문예창작학회, 2010, 174쪽.

28) 차상찬은 『개벽』의 <鹿尼夫人·桂月香·玉介>에서도, 평양에 계월향의 영당이 있고, 옥개·채란의 영당이 따로 있었는데, 이 두 개가 합쳐지게 된 당시 정황에 대해 언급한다. 『개벽』, 1924, 76~78쪽.

3. 외모의 묘사와 정감의 강화

1) 능력과 미추의 강조

앞서 논의를 통해 『해동염사』가 어떤 문헌들을 참고했는지, 이를 종합하면서 어떤 지향점을 가졌는지에 대해 언급했다. 이제 미시적으로 『해동염사』의 각편을 보면서 그가 참조한 문헌들과 새로 쓴 글들의 차이를 살피고자 한다. 차상찬은 개별 작품들을 골라서 번역하여 잡지에 수록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일종의 각색을 하기도 한다. 과거 여성들의 삶을 당대의 잡지(대부분 『별건곤』)에 수록하면서 해당 잡지의 성격을 고려하는 각색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각색으로 인해 전통 여성의 행위에는 새로운 의미가 부가된다. 이 장에서는 주로 문장적 차원에서 차상찬 개작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차상찬은 일부 각편에서 해당 인물을 서술 대상으로 선정할 이유를 밝힌다. 본격적인 인물의 서사를 전달하는 데 앞서, 인물들을 선택해 서사화하는 동기를 밝히는 이 지점은 전(傳)의 취의부와 유사하다.²⁹⁾ 전통 사서에서도 취의부를 생략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해동염사』는 많은 글들에서 인물 선정의 이유를 밝힌다. 대부분 원전이나 다른 2차 문헌들에 없는 내용으로, 그가 특별히 해당 인물에 주목하는 까닭을 삼입한 것이다.

29) 그가 사서라는 전통 영향권에서 이 책을 구성했음을 고려한다면 『해동염사』의 여성 이야기를 일종의 여성 전(傳)으로 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 장르가 다르기는 하지만, 유정월은 차상찬의 역사동화를 검토하면서 “여러 점에서 전(傳) 양식을 상기시킨다”고 보았다. 그가 참고한 『연려실기술』이나 『삼국사기』는 모두 명신(名臣)이나 장군의 전(傳)을 포함하며, 전은 전통시대 뿐 아니라 근대에도 자주 사용되던 양식이었기 때문이다. 전은 서사와 역사를 결합한다는 점에서도, 사건보다는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서술방식이라는 점에서도 역사동화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유정월, 『『어린이』 소재 차상찬 역사동화 연구-자료와 서술방식을 중심으로』, 『리터러시연구』 11, 리터러시학회, 2020, 376쪽.

고구려(高句麗) 력대황후중에 여류정치가로 제일유명한이는 고국천왕(故國川王)의왕후 우씨(于氏)다.³⁰⁾

고구려의력대왕궁(高句麗歷代王宮)에서 미인을 찾자면 첫째는 우에소개한 중천왕(中川王)의충희관나(寵姬貫那)요 그다음은 여기에 소개하라는 산상왕의소후(山上王小后)다.³¹⁾

이조력대 후비중에 지덕의행(至德懿行)을 가지신이가 펍 많지만은 여러 가지의 변고를많이치르면서도 정숙화은하야 백세의 귀감(龜鑑)이 될만치 자도(子道) 처도(妻道) 모도(母道)의모든부덕을 겸행한이는 혜경궁홍씨(惠慶宮洪氏)였다.³²⁾

선덕왕(善德王)은 신라의최초 아니 조선역사상에 처음으로 생긴여왕이니 진평왕(眞平王)의 따입이다.³³⁾

조선에서 여류문장가를 말한다면 누구나 먼저 허란설현(許蘭雪軒)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³⁴⁾

조선에서 추모의 여자 이악이를 하자면 누구 누구보다도 연산조(燕山朝)시대에 추모로 유명하던 김창암(金蒼巖)이라는 여자의 이악이를 먼저할수밖에 없다.³⁵⁾

해당 여성들이 선택된 이유는 이들이 가지는 어떤 위치 때문으로 보인

30) <故國川王后于氏>, 『해동염사』, 15쪽.

31) <高句麗宮中名花 山上王의慶姬小后>, 『해동염사』, 17쪽.

32) <惠慶宮洪氏>, 『해동염사』, 33쪽.

33) <新羅善德女 王>, 『해동염사』, 42쪽.

34) <許蘭雪軒과 小雪軒>, 『해동염사』, 75쪽.

35) <金兵使의말蒼巖>, 『해동염사』, 186쪽.

다. ‘제일’, ‘최초’, ‘먼저’ 등의 단어들 이 이들 이야기가 서술된 이유를 대변한다. 여류정치가, 여류문장가, 지덕, 미인(고구려 미인, 백제 미인), 추모 등으로 특징지어진 사람들 가운데 최고인 여성들을 소개한 것인데, 이는 각각의 후보군이 계열화(예컨대 여류문장가에 속하는 여성들의 목록) 되어야 가능해진다. 그 가운데 선택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해당 인물이 그 분야의 최고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아마도 차상찬은 이러한 방식으로 다른 인물들 역시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해동염사』에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직접적 표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비중이 적다. 악을 비난하고 선을 지지하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찾는 것이 쉽지는 않다. 직접적 포폄이 가능할 듯한 인물에 대해서도 그들의 행위를 기술하는 데 치중한다. <盲女の 딸 孝女知恩>에서 인물의 효성스러운 행위를 요약적으로 제시하지만, 그 효행을 명시적으로 찬(讚)하는 부분을 찾기는 어렵다. 『조선여속고』(뿐만 아니라 『삼국유사』, 『삼국사기』)를 보면, 효녀 지은은 자신의 몸을 팔아 부잣집 종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봉양한다. 『해동염사』에서는 이를 단순히 부잣집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축약하고 있다. 또 다른 각편들에 핵심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일, 어머니가 왜 이전에 먹던 밥은 거칠었으나 속이 편했는데, 요즘 먹는 밥은 부드러운데도 칼날로 뺏속을 찌르는 듯하냐고 묻는 일도 생략되어 있다. 『해동염사』는 인물들의 행위가 가지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긍정적 지점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는다.

또한 도덕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가능한 장희빈과 같은 인물에 대해서도, 직접적 포폄을 제한한다. <怪美人張禧嬪>를 보면, 교활한 횡포가 나날이 늘었다는 서술이 있기는 하지만, 애초에 장희빈은 온화하고 유순하였다고 하면서 그녀의 권력이 그녀를 변화시켰다고 본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세력을 갖추기 시작하면 교만해지는 것이 당연한데, 하물며 재기와 지모, 정략을 겸비한 미인 장희빈이 그러한 욕심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 인현왕후를 인고의 인물로 그리지도 않는다. 차상찬은 시앗을 보면 길가의 돌부처도 돌아앉는다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인현왕후 역시 “질투의 마음”에서 장희빈이 전생에 요사스러운 짐승이라는 등의 말을 숙종에게 전했다고 한다.

『해동염사』에서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와 그른 행위를 가르는 것이 주된 의도는 아닌 듯하다. 오히려 『해동염사』에는 인물의 미추에 대한 묘사가 자주 등장하며, 원래부터 있던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이 더 극적으로 변개되는 현상을 자주 볼 수 있다. 앞서 <怪美人張禧嬪>에도 장희빈의 아름다운 모습을 형용하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한다. 장 궁녀와 숙종이 처음 만나는 대목에서 담론적 저자는, 그녀의 모습을 “천하절색”이라고 한다. 이어 궁녀의 머리, 자태, 얼굴, 눈썹, 눈, 이의 모양까지 모두 하나씩 묘사한다.

여성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서술은 등장인물이 주인공이 아닌 경우에도 나타난다.

부인이 보니 안색이 이슬을 머금은 도화같았으며, 허리는 바람결에 흔들리는 세류와도 같았다. 비단과 비취빛 구슬로 위아래를 장식하고 있는데 진실로 경성 지색이었다. 심씨가 한참 바라보다가 네 나이는 몇 살이냐고 하니 심팔세라고 대답하였다.³⁶⁾

부인이 노한김에도 한번살여보니 그 어여쁜태도는 그야말로 추수의부용과도 같고 춘풍의 세류와도 같아서 아모리 여자가 보더라도 한번 담뱃끄러안고 싶었습니다. 부인은 그기생을 한참 보는중에 어찌나 유혹이되었던지 일시에 노기가 붉는 살아진 듯 다없어지고 다시 화평한낫으로 가차이 오라하야 친이 손을잡고 물어보되 네 나히 몇 살이냐고 하니 그 기생은 더욱 애교를부리며 고훈목소리로 十八歲라고 대답하였습니다.³⁷⁾

36) 沈氏見之 則顏如含露之桃花 腰似依風之細柳. 羅綺翠珠 飾其上下 真是傾城之色. 沈氏熟視曰 汝年幾何? 曰 十八歲矣. 『청구야담』 6권.

아래는 <平壤까지꽃이간 趙泰億夫人>이고 위는 『청구야담』의 해당 부분이다.³⁸⁾ 조태억의 부인 심씨는 투기가 심한 것으로 유명하다. 부인으로 인해 늘 다른 여자를 가까이하지 못했던 조태억은 평양에서 한 기생을 만나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심씨가 화가 나서 평양으로 향한다. 앞서 내용들은 심씨의 행차 앞에 치장한 기생이 등장하는 장면이다. 『청구야담』에서도 비유를 동반하면서 기생의 모습을 아름답게 그린다. 『해동염사』에서는 그에 더해 같은 여자가 보더라도 “담뱃끄러안고” 싶을 정도로 기생이 아름다웠거나, “일시에 노기가 붉은 살아진 듯 다 없어”졌다든 등 기생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부인의 감정이 변화하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미인의 힘이란 참으로 위대”³⁹⁾한 것으로 그린다.

『해동염사』에서 여성의 외모는 여성을 유형화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이다. ‘추부’(김석진의 딸 창암, 김면의 부인, 평양의 못생긴 기녀)를 편명으로 한 것도 특징적이지만, 아름다운 여성에 대한 언급은 편의 구분을 넘어 도처에 나온다. 앞서 언급한 “고구려의력대왕궁(高句麗歷代王宮)”의 미인 관나, 산상왕의 소후, 장희빈은 모두 1편에 등장한다. 2편의 윤관의 첩 곱미인, 3편의 설씨, 도화랑, 도미의 부인, 지리산녀, 아랑 등이 모두 미인으로 묘사된다. 4편에서 심씨가 만난 기녀, 5편의 이름난 기생들과 6편의 허구적 여성들 다수가 미인으로 나온다. 심지어는 지인지감으로 이름이 있었던 ‘백세부인’까지 얼굴은 물론이고 자질이 비상하다고 쓴다. 이렇게 『해동염사』에서는 여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형용하고, 그 위력을 말하기 위해 지면을 할애한다.

37) <平壤까지꽃이간 趙泰億夫人>, 『해동염사』, 185쪽.

38) 『조선해어화사』의 출처는 『청파극담』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청구야담』의 오기인 듯하다. 『청파극담』에는 이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39) <春香은 美人이 아니다>, 『해동염사』, 263쪽.

2) 사랑과 정서의 수사

『해동염사』에는 사랑에 빠진 남성과 여성이 자주 등장한다. 미인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두 사랑에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중 많은 인물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

고제봉경명(高霽峰敬命)은 우리 조선에서 유명한 유학자요 또 임진란(壬辰亂)당시에 의병장으로 적군과 싸우다가 삼부자가 모도질사한 유명한 충신이다. 그는 그렇게 엄격하고 점잔은 분이지만은 소년시대에 참으로 자미스럽고 향그러운 정화가 있었다. ...

정이 남달리 깊었던 청춘남녀가 오래동안 떠러졌다가 피차 다시 만나게되니 그기쁘고 반가운 맘이야 어찌다형언할수 있으랴. 울며불며 손을미주잡고 잠시도 서로떠러지지를 못하고 달게 하루밤을 지냈었다.

그때 두사람의 정분으로 말하면 비록 그곳에서 백년해로라도 하고싶었지만...40)

그때 그근처에는 마춤 한치녀가 있었으니, 얼굴이 추하고 못생기기로 유명한 야 역시 二十이월신 넘도록 누구나 다려가지지를 앓고 그냥 규중에서 꽃다운 청춘을 허송하게 되었었다. 두 노총각과 노처녀는 우연한기회에 서로알게되매 피차에 동정심도 생기고 정의소통하야 남유달은 사랑을하다가 이주정식의 결혼을하야 부부가되었었다.41)

고씨의 본집에는 아무도없고 다만 그의 사랑하는처 송씨(宋氏) 한사람만 있었다. 젊은 두부부의 사랑하는 정으로말하면 다만 한시간이라도 피차에 서로 떨어질수가 잇는티이지마는 다만 장사를하야 돈을모온다는 그욕심에 사랑한느 정도 다잊어보리고 항상 그남편을 이별하고 적적한 공방을지키며...42)

40) <高霽峰과 公州童妓>, 『해동염사』, 228쪽.

41) <壬亂義兵將, 金汚夫人>, 『해동염사』, 188쪽.

42) <女丈夫의復讐奇談>, 『해동염사』, 166쪽.

고경명처럼 엄격하고 점잖은 사람도 “자미스럽고 향그러운” 사랑을 하고(<高霽峰과 公州童妓>), 못생긴 처녀도 “남유달은 사랑”을 하고(<壬亂 義兵將, 金汚夫人>), 젊은 부부들은 사랑의 정으로 떨어지기 싫어한다. (<女丈夫의復讐奇談>) 아래 이야기에서 보이듯, 차상찬은 사랑과 관련성이 적어 보이는 인물들을 사랑의 화신으로 재탄생시키기도 한다.

도화랑(桃花娘)! 그의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어여쁘고 탐스럽고 귀여운 미인으로 생각할것이다. 그러나 이세상에 호탕한 청년남자들은 그의 이름만듣고 부지럽시 애를태우며 한번 만나보기를 원하지마라라 그는 현대의미인이아니오 벌써 몇천년전 신라시대(新羅時代)의 미인으로 백골이 이미 친토가되야 향그러운 흔적조차 찾아볼수없는 과거의 미인이다. 그는 신라제二十五世大王 진지왕(眞智王)때 사양부(沙梁部)의 여자이니 비록 한미한 집에서 태어났으나 어려서부터 특별한 지조가있고 얼굴이 어여빠서 요조한 태도가 마치 봄바람에 피어나온 복숭화꽃과 같음으로 그의 부모가 이름짓기를 도화랑이라고 하였었다. 원래에 꽃이피면 반듯이 나비가오는 격으로 그는 이팔방년에 어떠한 청년과 사랑을 하게되야 백년간약을맺고 따뜻한 사랑의 복음자리 속에서 달콤한 청춘의 꿈을꾸며 춘풍추월의 좋은시절을 등한스럽게 지냈었다. 그러나 형산(荊山)의 백옥은 암야에도 빛이나고 유곡의 란초(蘭草)는 십리까지 향취가 진동한다고 그의 아리따운 소문과 향그러운 이름은 어느듯 굴러서구중궁궐에까지 들어갔었다. 당시 신라의 임금인 진지왕은 황음(荒淫)하기 짝이없는 임금으로...⁴³⁾

<眞智王을 魔殺한 新羅의 美人桃花娘>에서 차상찬은 도화랑의 이름 다음을 강조하기 위해 여러 미사여구를 동원한다. 그 이름만 들어도 “어여쁘고 탐스럽고 귀여운 미인”을 생각하게 된다거나, 얼굴이 어여빠서 요조한 태도가 마치 봄바람에 피어나온 복숭화꽃과 같아 이름을 도화랑이라고 했다가나 하는 내용이 차례로 제시된다. 본격적으로 서사가 시작되기 전,

43) <眞智王을 魔殺한 新羅의 美人桃花娘>, 『해동명사』, 136~137쪽.

도화랑에 대한 이와 같은 도입부는 『조선여속고』(『삼국유사』)에서 찾아볼 수 없다. 앞서 문헌들에서는 사랑부 민가에 자태와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는데, 당시 사람들이 도화녀라 불렀다는 정도의 서술만 자리한다. 이 글에서 도화랑은 죽어서까지 남성을 유혹할 정도로 미모를 갖춘 여성으로 자리매김이 된다. 앞서 도화랑의 행위나 진지왕의 황음에 대해 비판할 만도 하지만 차상찬은 그들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眞智王을 魔殺한 新羅의 美人桃花娘>의 마지막은 이 둘의 사랑에 대한 일종의 논평으로 끝난다. “진지왕이 사후에까지 그렇게 도화랑에게 유혹하였든것을보면 도화랑이 당시 신라의 유명한 미인이었던 것은 사실이요 비록 수천년이된 오늘까지라도 귀교와 길달문의 전설이 남아있어서 여러사람들의 입으로 오르나리는것을보면 미인의 힘이란 또한 크다고 하지 않을수없다. 꽃이피고 입이떨어져 수천년의 덧없는 세월을 지내는 동안에 그들의 향그러운 로맨스를 전해주는 귀교와 길달문은 이제 다 허무러지고 빈터만 남았”⁴⁴⁾라고 한다. 이렇듯 『해동염사』에서는 비형랑이 아니라, 도화녀와 진지왕의 사랑에 초점을 두어 서술한다. 귀교와 길달문은 모두 비형의 신이함을 보여주는 증거물인데, 『해동염사』에서는 죽어서까지 남성을 유혹하는 미모의 여인의 힘과 이 증거들을 연계하며 서술한다. 이 이야기는 결국 빼어난 미모를 가져 죽은 이를 유혹한 여인과 죽어서도 유혹을 떨치지 못한 남성의 “향그러운 로맨스”가 된다.

또한 『해동염사』는 황진이 이야기 서술하면서 한 걸음 나아가 황진이 모친의 사랑 이야기를 장면화한다. 황진이 어머니에 대해서는 맹인 여성이었다는 설(허균의 『성웅지소록』)과 현금이라는 설(『송도기이』)이 있고 『조선해어화사』는 두 가지 설을 모두 소개한다. 그러나 차상찬은 후자를 택하면서, 현금과 소년의 사랑 이야기를 충실히 서술한다.

44) <眞智王을 魔殺한 新羅의 美人桃花娘>, 『해동염사』, 141쪽.

나이 18세에 병부교(兵部橋) 밑에서 빨래를 하는데 다리 위에 형용이 단아하고 의관이 화려한 사람 하나가 현금을 눈여겨 보면서 혹은 웃기도 하고 혹은 손짓도 하므로 현금도 마음이 움직였다. 그러다가 그 사람은 갑자기 보이지 않았다. 날이 이미 저녁때가 되어 빨래하던 여자들이 모두 흩어졌다.⁴⁵⁾

十八세때에 일즉이 병부교(兵部橋) 다리밑개천에서 빨래를 하러갔더니 풍채 좋고 의표가 화려한 엇딘묘소년이 그다리위로 지나다가 현금의 어여쁜 자태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참아가지를 못하고 머뭇머뭇하며 혹은 추파도 보내고 혹은 손짓도 하며 혹은 웃고 혹은 노래하여 백방으로 현금의 마음을 도발(挑發)하니 현금도 또한 자연이 마음이 동하여 그소년을 바라보고 추파를 주게되었었다. 그러나 현금은 아직까지 순결한 처녀의 몸이요 남의이목이번다한탓으로 아무런 말도 못하고 다만침묵을 지키고 빨래만 할뿐이였더니 그소년도 또한 어찌하지 못하고 어디로인지 종적을 살작감추고 말았었다. 그러나 한번 가슴속에 사랑의 싹이 돌기 시작한 현금은 소년에게 마음이 끌려 다른 여자들은 빨래를 다 하고 돌아가는데…현금은 낮을 잃은 사람처럼 빨랫방망이를 잡고 우두커니 혼자 앉아 있었다.⁴⁶⁾

현금과 소년이 처음 만나는 장면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제시하는 『조선여속고』(『송도기이』)와는 달리, 차상찬은 소년의 동기(현금의 어여쁜 자태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를 삼입하고, 이후의 구애 행위를 더 적극적으로 그리며(노래하여 백방으로 현금의 마음을 도발(挑發)하니), 상세하게 그 과정을 묘사한다. 현금의 속마음이 자세히 드러나며, 그녀가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던 이유, 사랑의 시작, 소년이 사라진 후의 심정 등이 순차적으로 묘사된다.

차상찬의 각색에 자주 등장하는 사랑으로 인해 전통적 남녀 관계가 변모

45) 年十八浣布於兵部橋下。橋上有一人。形容端妙衣冠華美。注目玄琴或笑或指。玄琴亦心動。其人仍忽不見。日已向夕。漂女盡散。『송도기이』

46) <開城名妓黃眞伊>, 『해동명사』, 215~216쪽.

되기도 한다. 예컨대 <江南德의 母親>은 『어우야담』에 수록된 이야기를 각색한 것인데, 장사를 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며 과부로 지낸 여성이, 남편이 중국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을 찾아가 재회한다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를 각색할 때, 『해동염사』는 강남덕 모친의 정서적 반응을 자주 드러낸다. ‘반가움’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나오는데, 중국에 다녀온 사람으로부터 남편의 편지를 받게 되었을 때, 편지를 받고 나서, 그리고 중국에서 재회하는 장면에서 모두 반가움이 표현된다. 이런 표현은 『어우야담』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해동염사』에서는 이 부부가 한 시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금실이 좋았다고 하기도 하고, 남편의 소식이 없자 부인이 지극히 애통해했다고 하기도 하고, 남편을 찾아 압록강을 건너 중국에서 남편을 찾던 일이 조금의 고통이라 여기지 않았다고 쓰기도 한다. 이러한 감정의 언술들은 모두 원전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어우야담』과 달리 <江南德의 母親>은 부부간의 금실, 놀라움, 반가움 등 인물의 정서를 자주 표현한다. 이때 강남덕 모친의 행위에는 원전과는 다른 뉘앙스가 부여된다. <강남덕의 모친>에 여성의 지조나 절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이야기는 그보다도 젊은 부부 사이의 친밀함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재서술된다. 열절이 유교적 윤리라고 한다면, 사랑은 남녀 사이의 자발적이고 친밀한 감각이다. 『해동염사』는 남녀와 부부의 관계를 윤리가 아니라 감정적, 정서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는다.

<강남덕의 모친>을 보면, 『어우야담』의 내용 중 확장한 부분뿐 아니라 누락한 부분도 있다. 『어우야담』에서는 부부의 재회 뒤, 중국과 우리의 국경 구분이 매우 엄격했으며, 임진왜란 후 중국에 가게 된 사람들이 많았으나 사사로이 갔다가 도망쳐 온 사람은 없었다는 등 국경을 넘는 것의 불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는데, 『해동염사』에서는 삭제된다. 당시와 과거의 차이를 염두에 둔다면 국경을 넘나드는 것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것이 필수적이겠지만, 차상찬은 이러한 설명을 과감하게 삭제한 것이다.

이상의 수사들이 어떤 효과를 발휘했는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 보도록 하자.

4. 결론: 기록주의와 낭만주의의 결합으로서 여성 역사

『해동염사』의 모든 원전이 밝혀져야 더 정확한 논의가 가능하겠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차상찬은 궁중의 여성 인물들에 대한 기록을 위해서는 주로 『조선여속고』를, 기생에 대한 기록을 위해서는 『조선해어화사』를 직접 참조하거나, 이들을 핵심적 문헌 중 하나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여러 야담에서 사대부나 평민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사하여 수록하기도 했다. 전설이나 귀신담에 대해서는 구술된 기록들을 접하기도 했겠으나, 기억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문헌 자료를 조사하여 원고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문헌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에 『해동염사』의 이야기들은 그 성격에 상관 없이 정확한 역사적 시공간과 인명, 지명 등을 수반한다. 앞서 살핀 것처럼 『해동염사』에는 연오랑 세오녀 이야기를 비롯해서, 열두 개의 젓이 달린 녹죽부인이 열 두 명의 아들을 한 배에 낳았다거나, 비둘기가 버려진 아이를 키웠다거나 하는 등 허구적이고 환상적인 이야기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해동염사』는 전해오는 것을 모았을 뿐 꾸며내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실재’의 성격을 가진다. 환상적이고 허구적 서사들이 『해동염사』에 다수 포진해 있는 것은 기록주의, 혹은 문헌주의⁴⁷⁾라고 할 만한 태도의 결과이다. 과거 역사가들이 가졌던 이러한 태도, 즉 스스로 믿을 수 없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보존되고 전승된 것이라면 기록한다는 태도를

47) 이강래, 「『삼국사기』의 정당한 이해를 위하여」, 김부식, 『삼국사기 I』, 이강래 역, 한길사, 1998, 49쪽.

말한다. 전통적 기록주의는, 그가 허구적 여성의 이야기까지 모두 ‘집록’할 수 있도록 하는 근간이 아닐까 한다.

『해동염사』는 허황된 이야기들을 전할 때에도 현실적, 역사적 배경을 구성해 낸다. 녹죽부인 이야기에서는 『여지도서』를 참고하면서 평안남도 평원군 숙천읍이라는 들과, 열귀리(悅歸里)라는 동네 이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춘향의 이야기도 박색고개라는 구체적 지명과 관련하여 소개되면서 전설화된다. 귀신이 등장하는 이야기(<어두운 밤의 소복 미인>)도 강원도 횡성에 내려오는 전설로 소개된다. 천지의 정기가 변하여 만들어진 영괴에 대한 이야기(<묘향산의 괴상한 여인>)도 정몽주가 등장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환상적이고 허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해동염사』의 글들은 이를 현실 공간이나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것들과 결부함으로써 ‘실재’의 기반 위에 세우고자 한다.

역사적 실재를 지향한다고 해도, 과거를 과거의 맥락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기술하고자 하는 것이 차상찬의 최종적 관심사였다고 하기는 힘들다. 『어우야담』을 참조하면서도, 그는 조선시대 여성으로 국경을 넘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기술하지 않는다. 부부로 산다는 것이 정서적 친밀함의 문제가 아니었다거나, 투기하는 여성에 대해 엄격한 규범이 있었다거나, 미추가 아니라 도덕적 올바름이 중요한 미덕이었다는 등 근대와 전통 여성의 삶의 차이를 설명하는 진술을 찾기는 힘들다. 오히려 『해동염사』는 사랑과 정서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전통과 근대 여성의 차이를 없애 버리는 방식으로 각색을 한다.

이러한 각색을 통해 차상찬이 어떤 독자를 상정하고 있는지 추론할 수 있다. 『해동염사』를 읽는다고 해서, 독자들의 성별을 여성이라고 단정 짓기는 힘들다. 앞서 “도화랑(桃花娘)! 그의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어여쁘고 탐스럽고 귀여운 미인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세상에 호탕한 청년남자들은 그의 이름만 듣고 부지럽시 애를 태우며 한번 만나보기를 원하지마

러라.”와 같은 언술을 염두에 둔다면, 이 글을 읽을 것으로 예상된 독자들은 오히려 젊은 남성들이다. 차상찬은 『해동염사』 서문에서 “이 글을 읽는 여러분 특히 女性界여러분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하지만, 그들은 남성일 수도 있는 것이다. 『해동염사』의 독자층은佳人(佳人), 사랑, 결혼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비교적 젊은 층으로 상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별건곤』과 같은 대중잡지의 독자층과 겹칠 것이다.

『해동염사』는 전통 여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하기보다는, 대중적 관점에서 전통 시대 여성들의 삶을 종합하여 소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한 대중적 관점을 지지하는 수사가 바로 전통적 인물의 내면과 행위를 사랑과 정감으로 채우는 방식이다. 『해동염사』는 젊은 대중 독자들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사랑과 정감의 언어들에 삽입하면서 전통 서사를 확대한다. 잘 알려졌듯이 1920~1930년대 잡지와 신문에는 자유연애와 결혼에 대한 담론들이 넘쳐 난다. 차상찬의 언술 역시 그러한 근대적 담론으로 인해 생산되고, 그것들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해동염사』의 낭만적 표현들, 여기에서 낭만주의적이라고 말하는 사랑과 정서의 수사는 전통 시대 여성의 삶을 당대인들의 삶처럼 느끼게 하는 효과를 가지며, 독자들이 시간, 문화, 제도의 장벽에 구애받지 않고 전통 여성 인물의 삶을 향유하게 한다.

이 글은 『해동염사』에서 전통과 근대가 어떤 방식으로 조우하는가를 기술하고자 하였다. 기록주의에 입각해 『해동염사』의 여성들은 시대, 신분, 능력, 자질, 미추 등에 있어 다양성을 담보하면서 역사적으로 실재한 인물들처럼 서술된다. 그러나 사랑과 정서의 낭만적 언어로 수식되는 그들의 내면과 행위는 다양하기보다는, 근대인의 연장선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결국 『해동염사』는 전통적 기록주의와 근대의 낭만적 수사가 만나 생성된 새로운 여성 역사이다.

이상의 논의를 위해 본고는 『해동염사』가 참고한 복잡다기한 문헌들의

출처를 살피고 『해동염사』와 비교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로써 『해동염사』의 서지 작업이 마무리되었다기보다는 이제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아울러 『해동염사』뿐 아니라 근대에 소비된 많은 여성 서사에 대한 비교 연구 및 총체적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차상찬, 『해동염사』, 한성도서주식회사, 1937, 1~321쪽.
- 김부식, 『삼국사기』(이강래 역, 『삼국사기』, 한길사, 1998.), 1~452쪽.
- 노명흠, 『동패락송』(김동욱 역, 『국역 동패락송』, 보고사, 2012.), 1~225쪽.
- 서유영, 『금계필담』, 국립도서관본, 1873(송정민 외 역, 『금계필담』, 명문당, 1985.), 1~332쪽.
- 유몽인, 『어우야담』(신익철 외 역, 『어우야담』, 돌베개, 2006.), 1~858쪽.
- 이능화, 『조선여속고』, 동양서원·한남서림, 1927(『조선여속고』, 김상익 역, 동문선, 1990.), 1~544쪽.
- _____, 『조선해어화사』, 동양서원·한남서림, 1927(이재곤 역, 『조선해어화사』, 이재곤 역, 동문선, 1992.), 1~568쪽.
- 일연, 『삼국유사』(이가원·허경진 역, 『삼국유사』, 한길사, 2006.), 1~617쪽.
- 『개벽』(국사편찬위,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근대사료 DB).
- 『계서야담』, 규장각본(유화수·이은숙 역, 『계서야담』, 국학자료원, 2003.), 1~771쪽.
- 『별건곤』(국사편찬위,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근대사료 DB).
- 강미정, 『『해동염사(海東艷史)』의 내용과 특성』, 『한국어문교육』 34,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21, 347~364쪽.
- 박길수, 『차상찬 평전』, 모시는 사람들, 2012, 1~429쪽.
- 송효섭, 『초월의 기호학』, 민음사, 2002, 1~356쪽.
- 엄태웅, 「차상찬의 『해동염사』 고찰」, Journal of Korean Culture 59, 고려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술확산연구소, 2022, 329~358쪽.
- 유정월, 『『어린이』 소재 차상찬 역사동화 연구 - 자료와 서술방식을 중심으로』, 『리터러시연구』 11, 리터러시학회, 2020, 353~383쪽.
- 이승운, 「한국 근대 역사소설의 형성과 전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1~236쪽.
- 임보연, 「근대 여성의 지식과 교양으로서의 『해동염사(海東艷史)』-‘제2편 명부인·명첩(名夫人·名妾)’ 이야기를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75, 동아시아고대학회, 2024, 9~35쪽.

ABSTRACT

The Encounter of Tradition and Modernity in *Haedongyeomsa*

Ryu, Jeong-wol

This study aims to describe how tradition and modernity intersect in *Haedongyeomsa*. By examining the text of *Haedongyeomsa* and the preceding and contemporary documents it appears to reference, this research explores how premodern narratives and Chasangchan's modern writing converge to reconstruct the lives of women in the past.

Firstly, *Haedongyeomsa* comprehensively embraces premodern women's narratives, effectively compiling and positioning them as "history." While composing the manuscript that forms the basis of *Haedongyeomsa*, Chasangchan extensively utilized contemporary texts (notably *Joseon Hae-eohwasa* and *Joseon Yosokgo*), earlier texts (such as collections of unofficial historical tales), as well as oral traditions and field investigations. Despite this, the detailed sentences of *Haedongyeomsa* reveal characteristics of modern writing—emphasizing women's capabilities and appearances, frequently depicting men and women in love, and expanding on emotions like longing and joy. Consequently, *Haedongyeomsa* transforms the relationship between men and women, and between spouses, from one grounded in ethics to one rooted in emotions and sentiments.

Ultimately, *Haedongyeomsa*, which sought to encompass the lives of women through a traditional archival approach, secures the diversity of its characters in terms of era, social status, abilities, qualities, and appearances. Yet, their inner lives and actions, described through romantic and emotional language, are portrayed less diversely and more as extensions of modern individuals. *Haedongyeomsa* represents a new history of women created through the intersection of traditional archivalism and modern romantic rhetoric.

Key Words Chasangchan, *Haedongyeomsa*, *Joseon Yasokgo*, *Joseon Hae-eohwasa*, archivalism, romantic rhetoric, tradition, modernity

논문투고일: 2025.01.22.

심사완료일: 2025.02.11.

게재확정일: 2025.02.11.

